

네카오, 주가 상승궤도 진입… AI 시장 활약서 전망 엇갈려

지난달 주가 각 11%·33.5% 급등
기관·外人 순매수… 개미는 순매도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두각 기대
카카오 정치권 규제·견제 우려와
내년 연결 영업이익 34% 증가 기대

상반기 내내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국민주’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달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임과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성장주’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지만,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지난달에만 10.9%, 33.5% 급등했다. 지난달 1일 네이버의 종가는 18만7700원이었지만 지난달 말 20만원을 넘겼으며, 카카오는 3만7600



네이버·카카오 로고.

/각사

원에서 5만원 선까지 뛰어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날도 2.18%, 2.21%씩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다.

두 종목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기관·외국인은 지난달에만 네이버를 1150억원(203억원+947억원), 카카오는 3128억원(2066억원+1062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각각 1179억원, 3048억원씩 순매도하면서 반대되는 투자 심리를 보였다.

게다가 네카오는 금리 추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긴축 종료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구 키움증

권 연구원은 “금리 등 매크로 이슈 완화에 따라 내년 광고 경기의 의미 있는 회복과 커머스 솔루션 사업 확대 등에 따른 타라인 성장 및 올해 비용 컨트롤 기조가 내년에 온기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성장과 마진율 개선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네이버는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 인공지능(AI)의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챗GPT 열풍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으로 인한 혼풍을 맞이할 때, 네카오는 AI 수혜주에서 소외되며 오히려 역진한 바 있다.

지난 8월 네이버의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한 이후에도 미미한 반응과 함께 주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증권가에서는 AI 시장에서의 네이버 활약을 기대하며 업계 탐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키움증권을 비롯한 6개사가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30만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도 2024년 기업 간 거래(B2B) 생성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기업 중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업체는 네이버”라며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레퍼런스로 확보해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의 기업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카카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

리고 있다. 오 연구원은 “카카오는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서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이슈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정치권의 규제와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4년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높아진 데 반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아직 카카오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카카오의 상장 자회사를 제외한 연결 영업이익은 2024년 5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카카오가 호황기였던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44兆 대규모 수주에도… 증권가 ‘싸늘’

에코프로비엠

삼성SDI와 NCA 양극재 공급계약
과도한 기업가치… 해외비 PER 4배 ↑

에코프로비엠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도 증권가 반응이 냉담하다. 이미 주가 수익비율(PER)이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도 100배에 달할 만큼 주가가 먼저 급등했던 탓이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적정주가 대부분이 현재 주가보다 낮은 상황이다.

4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대비 15.36% 오른 32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일 삼성SDI와 향후 5년간 43조9000억원의 NCA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적용 환율만 1306원으로 밝혔고, 판매단가는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물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은 “양극재 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잡는가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진다”며 “이번 계약으로 인한 공급 물량을 70만~80만톤으로 추

정하면 연간 14~16만톤 수준으로 실적 추정치 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투자의견은 기존과 같이 ‘비중 축소’, 목표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대폭 낮은 20만원을 유지했다.

한 연구원은 “대규모 계약이 단기 주가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성장 계획에 이미 설정된 그 이상이 아니다”라며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한국 양극재업체들의 과도한 기업가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삼성 SDI는 이전에는 양극재 수급을 에코프로비엠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지만 자회사인 에스티엠이 대규모 증설을 시작했고, 포스코퓨처엠과도 중장기 계약을 맺었다.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 보면 삼성 SDI나 SK On 이외의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미국 시장을 선점한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지만 최근 진행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 중국업체들의 미국 이외 시장의 잠식 등의 이슈는 모든 관련업체들의 기업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25년 실

적 기준으로 해외 양극재업체 대비 PER이 4배 가까이 높아 한국 양극재업체들의 주가는 단기 수급 요인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적정주가는 대부분 현재 주가보다 낮다.

대신증권은 수주 소식에도 목표주가를 오히려 2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하이투자증권은 목표주가 27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은 “이번 중장기 공급계약으로 내년부터 삼성 SDI 향 매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5년간 총 계약금액인 44조원이 기존에 삼성 SDI 향 매출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지난 7월 이후 단기에 발생한 주가 하락세로 과도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셀, 소재 업종 내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낮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투운용, 국내 첫 ‘만기자동연장 채권형 ETF’ 출시

투자 연속성 이어갈 수 있어
리스크 줄이고 금리 매력 높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달 중 국내 최초 만기자동연장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만기자동연장 채권형 ETF는 특정 만기월에 해당하는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주로 편입한 뒤 편입자산의 만기도래 시점이 다가오면 익년도 만기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자동 교체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있는 만기채권형 ETF와 달리 투자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선보이는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의 경우 출시 시점에는 2024년 11월 만기되는 채권을 편입하며, 해당 채권의 만기시점 도래 시 익년도 11월 만기 채권을 새로 편입한다. 포트폴리오 변경은 매년 11월 말일 기준 5영업일 이내에 진행되며, 분배금은 11월 마지막 영업일(지급기준일) 이후 12월 초에 지급된다.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의 비교지수는 KIS자산평가가 산출·발표하는 ‘KIS 11월 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 총수익

지수’이다. 해당 지수는 KIS 종합채권지수 구성종목 중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를 만기로 하는 ▲신용등급 AA-이상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의 특수채·은행채·기타금융채·회사채 종목으로 바스켓을 구성해 산출한다.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역시 신용등급 AA- 등급 이상의 특수채·은행채·기타금융채·회사채 등을 편입한다. 공사 등이 발행하는 우량하고 유동성 있는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해 크레딧 리스크(신용위험)는 줄이되 금리 매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하은 기자

토권증권 시장 ‘활발’

하이투자증권, 미술품 기반 사업 활성화

‘투게더아트’와 공동 추진

하이투자증권이 토권증권(STO) 관련 기업과의 업무협약으로 토권증권 시장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투게더아트와 토권증권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하이투자증권 본사(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과 도현순 투게더아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이투자증권과 투게더아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술품을 기반으로 하는 토권증권 사업 활성화와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 및 계좌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투게더아트는 케이옥션의 자회사



(왼쪽부터)도현순 투게더아트 대표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이 토권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로 국내 최초 미술품 투자 플랫폼인 ‘아트투게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서 높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0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신하은 기자

한국투자증권, 한우 관련 상품개발 추진

‘스타키피퍼’와 업무협약

한국투자증권은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운영사 스타키피퍼와 토권증권 상품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공급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뱅카우를 비롯해 육류 가공센터인 고기설계소, 한우 브랜드 솔직한우 등 축산 및 유통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스타키피퍼와 함께 관련 토권증권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키피퍼는 자체 보유한 한우 1600두를 활용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내년 초 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9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기



최서룡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장(왼쪽)과 안재현 스타키피퍼 대표가 지난달 30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솔 파트너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업계 최초로 토권증권 발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 발행까지 완료했다. 또한 각각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조각투자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 등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 중이다. /안상미 기자